

에디토리얼 패션사진에 나타난 성별에 따른 젠더 이미지 표현

최 나 리* · 우 주 형⁺

인하대학교 의류학과 석사* · 인하대학교 의류학과 부교수⁺

Expressions of Gender Images According to Sex in Editorial Fashion Photography

Na-Ry Choi* · Ju-Hyung Woo⁺

M.S, Dept. of Clothing & Textiles INHA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 Textiles, INHA University⁺

(2007. 1. 4 투고)

ABSTRACT

This study's purpose is how express gender image according to sex in editorial fashion photography. This study's objectives are the women's magazine Vogue, Harper's Bazaar and man's magazine GQ, Esquire published 2000-2005 within the country. The photography was classified with established a standard based on the precede studies. The photo is classified Gender image according to dress and its ornaments, model character and atmosphere by Sex . Expression of femininity woman has exposure of body parts and emphasizing thin eyebrows and red lips, soft and mild image, modest and static pose. Man expressed femininity used ladylike color and pattern, erotic exposure of body and long hair style. Commonly emphasizing red lips, natural background of flower-plant, S-line. For expression of masculinity man and woman are used masculinity item, short hair-style and thick eyebrows. And also emphasize square like chin and shoulder. Specially, woman used direct silhouette to conceal soft body curved line. The expressions of androgynous woman and man are colorful dress and make-up. Woman emphasized male face to show and man expressed soft image through hull of abundant material of fur. All two sex selected method that conceal body curved line and face to express sexless. Hiding characteristics of body and face make indistinct of sex. The gender is affected by atmosphere such as model and illumination · background as much as clothes because of the editorial fashion photography.

Key words: sex(성), gender image(젠더 이미지), editorial fashion photography(에디토리얼 패션사진)

I.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의의

사회와 산업이 발전하면서 여성과 남성의 고유영역에 대한 고정관념이 사라지면서 조금 더 스타일리시하고 감각적으로 꾸미려는 현대 남성들의 고민이 시작되었다. 최근 메트로섹슈얼, 위버섹슈얼로 남성의 이미지가 새롭게 포장되며 패션의 핫 코드로 자리 잡게 됐다. 그리고 현재는 강한 남성이나 여성 혹은 중성 이미지 등 다양한 스타일들을 혼합된 일명 크로스섹슈얼(cross sexual)이라는 새로운 코드가 등장했다.¹⁾ 이러한 변화는 기존에 여성에게만 한정되었던 장식(裝飾)이 남성에게도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하였고, 남성들은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자신들의 내면에 숨겨졌던 여성성을 찾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고, 쉽게 표현할 수 있게 하는 가장 큰 요소는 바로 복식이라 할 수 있다.

복식은 지역과 신분 등 다양한 차이와 구별에 따라 그 형태를 달리 하였는데 복식형태의 가장 크고 오래된 차이는 바로 신체적 성에 따른 구분이라 할 수 있다. 지난 역사를 통해 인간은 신체적 차이에 따라 남성(male)과 여성(female)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신체적 성에 따른 이 구분은 남성과 여성이 자라면서 행동 등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남녀의 역할을 구분하는 기존의 성 개념은 남성과 여성, 모두의 사고와 행동을 제한함으로써 삶의 영역을 축소시켰으며, 남·여를 구분 짓는 수단으로 사용된 복식은 이러한 구속을 더욱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였다.²⁾ 그러나 18세기 일어난 산업혁명은 이러한 성의 고정관념을 무너뜨리기 시작했고, 20세기 들어서는 신체적 차이에 따른 성의 구별보다는 사회적·문화적·심리적 성인 젠더(gender)에 따라 성을 구분하자는 의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젠더는 사회적, 심리적 성 개념으로 여성성(femininity), 남성성(masculinity), 양성성(androgynous)과 중성성(sexless)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성 개념의 변화는 20세기의 특징적인 사회현상이라 할 수 있다.

20세기 성 개념의 변화를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는 문화요소로 사진을 꼽을 수 있다. 패션사진은 20세기 초의 급속한 인쇄 미디어의 발전으로 문화의 한 구성요소로 발전하게 되었다. 당시의 많은 예술가들이 패션사진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예술성과 창작성이 돋보이는 패션사진들은 인쇄매체를 통하여 당시의 대중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³⁾ 패션사진은 복식 뿐 만 아니라 당시의 문화와 사회적 욕구들을 한 장에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매체로 연구 자료로서의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그 중 에디토리얼 패션사진(editorial fashion photography)은 에디터와 사진작가의 의도에 의해 만들어지고 독자들에게 패션 정보를 제공하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역사 이래로 남성과 여성으로 유지되어 오던 성 개념이 복식을 통해 표현되고 있고 이것이 패션사진에 가장 잘 반영되고 있음을 알고 현대의 다양한 젠더 이미지가 복식에 어떠한 방법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알아보고, 신체적 성과 젠더가 복식에 미치는 영향을 패션사진을 통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는 앞으로의 패션 디자인에 있어 성 개념의 표현에 관한 인식을 새로이 하고 그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에디토리얼 패션사진에 나타나는 성에 따른 젠더 이미지를 분류하기 위해 선행 자료들을 참고로 실루엣, 복식 아이템과 액세서리, 색상, 의복의 소재, 무늬와 문양,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의 총 6가지의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 기준에 따라 젠더 이미지를 여성적 이미지(femininity), 남성적 이미지(masculinity), 양성적 이미지(androgynous), 중성적 이미지(sexless)로 나누었다. 이를 바탕으로 에디토리얼 패션사진을 4가지 젠더 이미지로 분류한 후, 각 이미지를 복식의 표현방법과 모델과 사진특징으로 나누어보았다.

연구의 범위는 기존의 남성이 가지고 있던 이미지를 탈피하여 자신을 치장하는데 열중하는 현상이 국내에 나타나기 시작한 2000년부터 2005년까지로

설정하였다. 대상은 2000~2005년 사이 국내에서 발행된 잡지 중 패션전문지인 여성 패션 잡지인 보그(Vogue)와 하퍼스 바자(Harper's Bazaar)와 남성 패션 잡지 지큐(GQ)와 에스콰이어(Esquire)에 실린 에디토리얼 패션사진으로 하였다. 여성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젠더 이미지 연구를 위해 국내에서 발행되고 있는 여성잡지 중에서 가장 높은 인지도를 보이고, 패션전문지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보그와 바자를 선택하였다. 남성의 경우 남성전문지를 나타내는 잡지가 에스콰이어와 지큐가 유일하게 존재하였기 때문에 이 두 잡지를 선택하였다. 단, 지큐의 경우 2001년 3월호가 국내 창간호이므로 창간호부터 살펴보았다.

사진의 분류는 1차적으로 연구자가 하였고, 2차 분류는 석사 이상의 의류디자인학 전공자 3인을 통해 최종적으로 자료를 분류하였습니다.

II. 성(性)과 에디토리얼 패션사진에 대한 이론적 배경

1. 성(性)과 복식

성(性)을 말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른 개념인 생물학적 성 개념인 섹스(sex)는 신체적 성을 말하며 구체적인 해부학적 생김새를 기준으로 한 남녀 구분을 말한다. 생물학적 차원의 성과 달리 사회 문화적 차원에서 남녀를 구분하는 경우 젠더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젠더를 성과 동의어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젠더는 출생 이후 사회적, 문화적, 심리적인 환경에 의하여 학습되어 후천적으로 주어진 남녀의 특성을 의미한다. 철학이나 언어학에서만 사용되던 이 용어는 1955년 Money가 외부 생식기가 불분명한 상태로 태어난 사람들의 남성 또는 여성적인 상태를 기술하는데 사용하면서 심리학에 적용되기 시작했다. 현재 성(性)은 남성, 여성, 또는 중성으로서의 신분을 의미하고, 젠더는 신체적이고 행동적인 기준에 따른 개인의 남성 또는 여성적 특성을 의미하는 방향으로 구분되어 사용되고 있다.⁴⁾

성적 취향들이 하위분화 되면서 세분화된 취향이 만들어지고 있고, 특정한 습성이나 욕구들이 여러 가지 젠더 정체성의 바탕이 되었다.⁵⁾ 정체성(identity)이란 인간이 속해 있는 사회에서 습득하는 행동양식, 태도, 가치 및 인성과 관련된 것이므로, 성(性)의 의미를 해부학적으로 남성인가 여성인가를 구분할 때는 성 정체성(sexual identity)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그 사회에서 통용되는 여성성(femininity)이나 남성성(masculinity)을 나타낼 때에는 젠더 정체성(gender identity)을 사용한다.⁶⁾

지난 역사 속에서 옷의 시작은 신체적 성과 무관하였으나, 중세의 십자군 전쟁과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남성은 바지, 여성은 치마를 입는 것이 당연시 여겨지면서 그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⁷⁾ 르네상스, 바로코, 로코코 시대를 걸치면서 남녀의 의복 아이템은 차이는 있었으나 화려한 장식과 치장은 복식의 차이와 관계없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18세기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특히 남성 의복은 실용성을 위주로 바뀌어갔다.⁸⁾ 20세기 여성 복식은 코르셋을 버리면서 시작되었고⁹⁾, 두 번의 전쟁은 여성 복식 역시 실용성을 우선으로 하면서 남성성이 강조되었다.¹⁰⁾ 전 후 디올의 뉴 룩의 등장으로 여성성을 강조하는 의복이 다시 선보였으나, 1960년대 비틀즈와 히피의 등장으로 남성과 여성의 구별이 없는 유니섹스 의복이 등장하면서 더 이상 신체적 성에 따른 의복의 차이가 없어졌다.¹¹⁾ 1970년대에는 유니섹스에 이어 두 성을 동시에 표현하는 앤드로지너스 룩이 등장하고, 1980, 1990년대 자유로움과 개성, 다양함을 추구하는 사회·문화적 현상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내면에 감추어진 다양한 젠더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였고, 이는 복식을 통해 적극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하였다.¹²⁾

2. 에디토리얼 패션사진

패션사진은 그 시대 이상형과 유행 패션에 관해 그대로 전해주는 하나의 매개체이자 사회상이 변모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잣대이기도 하다. 패션사진의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표현 기능은 패션을 표현

하는 적절한 수단으로 계속 이용되고 있으며, 패션 사진이 신체를 예술의 주제로 부활시켰다고 할 수 있다.¹³⁾

패션사진은 크게 사진의 촬영 콘셉트에 따라 애드버타이징 사진(advertising photography), 카탈로그 사진(catalogue photography)과 에디토리얼 패션 사진(editorial fashion photography)과 같이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그 중 에디토리얼 패션사진이란 기본적으로 잡지를 위한 패션사진으로서 잡지에 기사 내지 화보화 되어 게재되는 것을 전제로 촬영한 사진을 말한다.¹⁴⁾ 에디토리얼 패션사진은 다양한 잡지의 성격처럼 재미있는 기획과 충분한 상상력을 가지고 사진을 제작해야 한다. 에디토리얼 패션사진은 저널과 매거진의 성격을 균형 있게 갖추어야 하고, 항상 독자들에게 흥미가 있는 주제를 선택해야 하며 독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도 전달해야 하고 시대를 앞서가는 시각적인 표현력으로 만든 멋진 이미지들을 독자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독자들을 즐겁게 혹은 경이롭게도 해야 한다. 대중잡지의 에디토리얼 패션사진은 최근의 패션 경향을 보여주고, 독자들에게 하여금 이러한 트렌드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데 그 목적을 둔다고 할 수 있다.¹⁵⁾

에디토리얼 패션사진은 일정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크게 주제(theme), 컨셉(concept), 크레딧 라인(credit line), 사진(photography)의 4부분으로 나누고 있다.¹⁶⁾ 에디토리얼 페이지 구성요소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진은 패션과 모델이 함께 포함되어 촬영되는 경우 가장 시선이 많이 가는 부분이며 배경, 소품 등은 콘셉트를 풀어나가는데 중요한 도구들이다. 한국과 미국 광고의 구성유형에서 75%이상이 사진으로만 이루어져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사진으로만 이루어진 패션사진이 언어권이 다른 지역에서도 공통된 언어로서 가장 효과적인 광고유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패션 광고의 특성이라고도 할 수 있다. 결국 패션사진이라는 특성을 생각해 볼 때 에디토리얼 페이지 역시 사진만으로도 독자들에게 충분히 소구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¹⁷⁾

Ⅲ. 에디토리얼 패션사진에 나타난 젠더 이미지 표현빈도

패션 잡지에 에디토리얼 패션사진이 차지하는 비중과 2000년에서 2005년까지 나타난 젠더 이미지 표현빈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에디토리얼 패션사진에 나타난 젠더 이미지 분석은 첫째, 복식을 통한 표현방법과 둘째, 모델과 사진특징으로 나누어 연구하였다.

1. 여성(fema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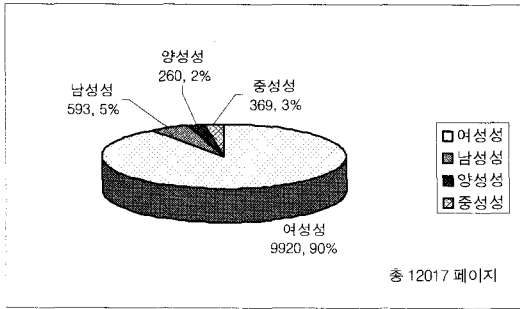
2000년-2005년 여성 패션 잡지인 보그와 하퍼스 바자 144권에 나타난 에디토리얼 패션사진은 권당 평균 355.2페이지로 그 중 에디토리얼 패션사진은 7.7개의 테마, 76.4페이지로 전체 잡지 분량의 22%를 차지하고 있었다. 2000년 권당 평균적으로 전체 잡지 분량 중 20%에 해당하던 에디토리얼 패션사진의 페이지가 2005년에는 22%로 증가했는데 이는 에디토리얼 패션사진의 중요성이 조금씩 커지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21세기 이후 각 종 대중매체에서 보여준 다양한 젠더 이미지를 고려하여 보았을 때 여성잡지에서 남성성, 양성성, 중성성의 빈도가 예상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특정한 독자 계층을 가지고만 들어지는 잡지의 특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2000년~2005년 까지 에디토리얼 패션사진에 나타난 여성의 젠더 이미지는 총 12017페이지이다. 이 중 여성적인 이미지가 90%(9748)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남성적 이미지가 5%(593), 중성적 이미지 3%(369), 양성적 이미지가 2%(260)순으로 나타났다.

<표 1> 에디토리얼 패션사진에 나타난 연도별 여성의 젠더 이미지(페이지 수)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여성성	1456	1440	1792	2115	1948	2049
남성성	86	112	113	97	106	126
양성성	17	47	51	59	50	57
중성성	30	63	53	52	52	46



〈그림 1〉 여성잡지의 에디토리얼 패션사진에 나타난 젠더 이미지

2. 남성(male)

남성패션잡지인 에스콰이어와 지큐에 나타난 에디토리얼 패션사진은 전체 페이지 평균 292페이지 중 50.4 페이지로 전체 잡지 분량의 17%를 차지하고 있었다. 에디토리얼 패션사진은 평균 5.1개의 테마로 이루어졌다. 2000년에는 전체의 13%에 해당하던 에디토리얼 패션사진의 페이지가 2005년에는 15%로 증가했다. 여성 패션잡지의 에디토리얼 패션 사진 만큼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남성잡지에서의 에디토리얼 패션사진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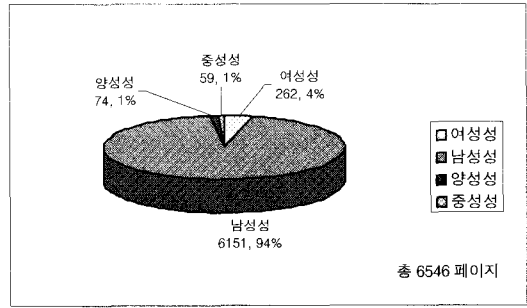
2000년도 전체적으로 페이지 수가 적은 것은 지큐의 창간이 2001년 3월이었기 때문이다. 여성잡지에서는 여성성이 높게 나타났듯이 남성잡지에서는 남성의 남성성의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2003년 이후 여성성의 비중은 낮아진 반면 양성성과 중성성의 비중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표 2〉 에디토리얼 패션사진에 나타난 연도별 남성의 젠더 이미지(페이지 수)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여성성	20	34	60	57	44	47
남성성	374	823	1254	1345	1163	1192
양성성	5	9	5	12	28	15
중성성	4	1	16	10	16	12

패션사진에 나타난 남성의 젠더 이미지는 총 6546페이지 중 남성적인 이미지가 94%(6151), 여성

적 이미지가 4%(262), 양성적 이미지(74)와 중성적 이미지(59)가 각 1%로 나타났다. 여성과 마찬가지로 남성성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 남성잡지의 에디토리얼 패션사진에 나타난 젠더 이미지

IV. 에디토리얼 패션 사진에 따른 젠더 이미지 표현

1. 여성의 젠더 이미지

1) 여성성(femininity)

(1) 복식의 표현방법

여성적인 이미지를 가장 잘 연출하기 위해서는 남성이 가지지 못한 여성의 신체적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패션사진에서는 여성의 신체부위를 노출함으로써 여성미를 보여주고 있다. 가장 많이 노출되는 부위는 바로 가슴과 다리이다. 가슴은 여성의 가장 매력적인 신체 부분으로 모성과 섹시함을 겸비하고 있는 부위로 이중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다. 신체 노출과 더불어 프릴, 레이스, 러플, 자수 등의 장식은 〈그림 4〉와 같이 여성미를 나타내는 또 다른 방법으로 여러 의복에서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 얇고 비치는 소재들을 사용하여 자연스럽고 우아한 느낌에서부터 귀엽고 발랄한 느낌까지 다양하게 연출하고 있다. 장식 중에는 식물을 모티브로 한 것도 빠질 수가 없다. 꽃문양이 프린트 된 의복이나 꽃 코르사주, 꽃다발 등 자연적인 물건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2) 모델과 사진특징

여성성을 나타내는 모델들은 계란형의 얼굴과 긴 머리카락, 큰 눈, 붉은 입술 등의 외적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헤어스타일은 주로 긴 생머리를 그대로 늘어뜨리거나 약간의 웨이브를 준 긴 스타일, 단정하게 올린 업스타일, 부풀린 스타일의 4가지 나누어 볼 수 있었다. 헤어스타일의 차이는 조금씩 있지만 모두 자연스러움과 우아함과 같은 여성미를 강조하고 있었다. 메이크업의 경우 짙은 화장보다는 자연스럽고 투명하게 하였으며 가늘고 긴 눈썹과 붉은 입술을 공통적인 특징으로 하고 있다.

여성성을 강조하는 모델들의 포즈는 두 손과 다리를 다소곳하게 모으고 있는 포즈가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 가슴과 허리, 엉덩이로 이어지는 S라인을 잘 보일 수 있는 옆모습과 살짝 비틀어진 포즈를 연출하기도 한다<그림 3>.

2) 남성성(masculinity)

(1) 복식의 표현방법

여성성을 강조하기 위해 노출을 하였다면 남성성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와 반대로 여성적 신체 특성이 나타나는 부위를 의복으로 감춘다.

여성이 남성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의복은 남성용 슈트인데 슈트를 입을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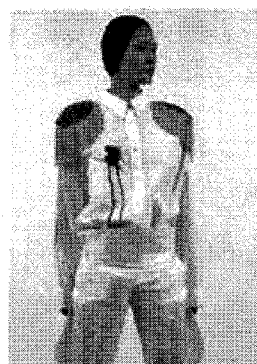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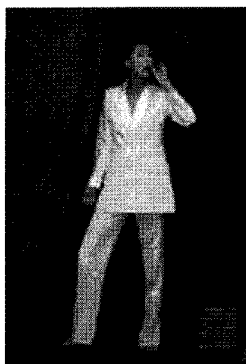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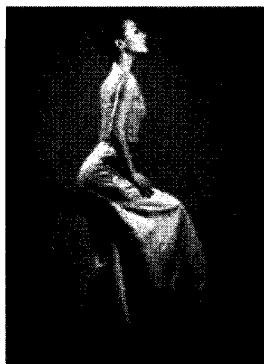
재킷은 가슴을 가려주고 바지는 엉덩이와 다리의 곡선을 가려 여성성을 감춘다<그림 5>. 남성성 표현을 위한 또 다른 표현방법으로는 곡선대신 직선적인 선을 가진 의복의 착용이다. 슈트는 어깨선, 재킷의 라인, 바지 선 등 모두 직선적인 선을 가지고 있다.

의복 외에 남성적 이미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들로 담배, 총, 증절모 등 남성용 아이템의 사용이다. 슈트 착용과 함께 증절모를 쓰거나 두꺼운 시가를 물고 있음으로 남성성을 강조한다.

(2) 모델과 사진특징

여성성을 나타내는 모델과는 달리 남성성을 나타내는 모델은 대부분 짧은 헤어스타일을 하고 약간의 각진 얼굴과 화사한 메이크업 대신 짙은 눈썹을 강조한다. 액세서리를 최소화하였으며 소품들은 남성적인 이미지의 것들이 사용이 되었고 여성이 가지지 못한 수염을 그려 남성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모델의 포즈 역시 여성성을 나타낼 때와 차이가 나타나는데 딱딱하고 강한 이미지 분위기를 연출한다. 슈트 착용 시 다리를 약간 벌리고 한쪽으로 중심을 잡거나 약간의 구부정한 포즈를 취하고, <그림 6>과 같이 군복을 입었을 경우 군인과 같은 정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림 3> 여성성 - S라인 강조와 신체 노출. 보그 2001년 8월
 <그림 4> 여성성 - 긴 머리와 화려한 꽃 장식. 보그 2005년 3월
 <그림 5> 남성성 - 슈트와 시가. 하퍼스 바자 2005년 5월
 <그림 6> 남성성 - 어깨를 강조한 밀리터리 룩. 하퍼스 바자 2005년 2월

3) 양성성(androgynous)

(1) 복식의 표현방법

양성성의 가장 큰 특징은 두 성의 공존이다. 여성의 몸에 남성적인 실루엣의 의복을 착용함으로써 양성성을 표현하거나 반대로 남성적 얼굴에 여성적인 헤어스타일과 목걸이, 팔찌를 착용하고 부드러운 소재의 의복을 입어 양성성을 나타낸다. 여성의 상체와 남성의 하체의 결합은 여성에게 있는 가슴을 보여줌으로써 여성성을 강조하고 하체는 남성성이 강한 바지를 입어 두 성이 혼합된 느낌을 준다(그림 7).

또 두 성의 특징을 더욱 돋보이게 장식을 과다하게 하고 이러한 장식들로 인해 신체들은 과장될 수밖에 없다. 헤어스타일은 형태를 알 수 없도록 풍성하게 한 반면 큰 어깨와 잘록한 허리를 강조하고, 형태를 알 수 없는 하의를 통해 두 성의 결합된 형태를 나타낸다. 또 과도하게 복잡하고 화려한 무늬는 눈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여성의 신체적 특징을 덮어버리지만 그러한 무늬가 바로 여성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2) 모델과 사진특징

여성 모델이 양성성을 가지기 위해서 얼굴은 최대한 남성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여성의 몸에 남성의 얼굴을 가지게 함으로써 양성성을 나타내려 하기 때문이다. 모델들은 짙은 눈썹과 어깨길이 정도의 비교적 짧은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다. 양성인 완벽한 인간을 말하는데 이때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은 완벽한 인간을 묘사하기 위해 화려하고 아름답게 한다. 사진들은 전체적으로 어두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몽환적인 분위기는 양성을 가진 이상적인 존재가 실존하는 환상적인 세계의 느낌을 주기에 충분하다(그림 8).

4) 중성성(sexless)

(1) 복식의 표현방법

중성성은 양성성과는 반대로 두 성의 특징을 감춤으로써 나타낸다.

여성의 경우 여성특유의 부드러운 신체 곡선을 은폐하는 방식으로 중성적인 이미지를 연출하였다.

모든 의복은 몸매를 드러내지 않게 자신의 사이즈보다 큰 옷을 입은 듯 보인다. 이러한 의복에는 단추, 지퍼 등의 기능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 외에는 장식이 없고 대부분 남녀가 공용으로 입을 수 있는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 의복의 줄무늬나 기하학적인 문양은 신체의 선을 구분하기 어렵게 만들어 두 성의 특징을 알 수 없게 하기도 한다.

이성의 복식 디자인 요소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의복에 도입한 경우에도 착용자의 성을 완벽하게 위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¹⁸⁾ 몸을 가리더라도 얼굴만으로도 충분히 성을 구별할 수 있다. 그것은 남녀의 얼굴이 몸만큼이나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험령한 의복으로 이미 신체적 특성이 드러날 수 없게 하고 거기에 얼굴까지 가려 성의 구별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눈은 가장 많은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부분으로 눈만 가려도 마치 얼굴을 가린 것과 같은 느낌을 주며, 성 이미지 표현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림 9>와 같이 얼굴을 가리는 경우 의복도 신체를 거의 드러내지 않아 어떠한 성적 이미지도 느낄 수가 없는 중성성을 가지고 있다.

(2) 모델과 사진특징

모델 선택은 에디토리얼 사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중성성을 표현하는 경우 모델들이 가지고 있는 분위기가 의복을 통한 표현만큼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모델들은 어느 한 쪽 성에 치우치지 않은 개성적인 얼굴을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 짧은 머리스타일과 가슴이 크지 않은 마른 몸매를 갖고 있다. 모자 등으로 얼굴을 가렸기 때문에 메이크업도 거의 하지 않는다. 무채색의 배경은 무성의 느낌을 잘 표현하고 있다.

2. 남성의 젠더 이미지

1) 여성성(femininity)

(1) 복식의 표현방법

남성의 여성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여성적인 것들의 차용하는데 의복의 형태는 변화시키지 않고 색상과 문양을 바꾸는 것은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그림 7> 양성성 - 남성적인 재킷과 가슴노출, 비구조적인 형태 하의. 보그 2005년 12월
 <그림 8> 양성성 - 꽃으로 머리장식, 가슴노출, 무표정한 얼굴과 몽환적인 분위기. 보그 2005년 7월
 <그림 9> 중성성 - 가면을 사용하여 얼굴을 은폐. 하퍼스 바자 2004년 8월
 <그림 10> 중성성 - 짧은 머리와 드러나지 않는 여성적인 몸매. 하퍼스 바자 2000년 12월

슈트 안에 여성적인 색상의 셔츠를 입거나 빨간색의 통이 넓은 바지를 입어 마치 치마 같아 보이도록 연출한다. 딱딱한 무늬대신 화사한 꽃무늬 셔츠와 넥타이를 착용함으로써 남성 안에 내재되어 있는 여성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여러 사진에서 손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여성과 같이 남성들도 스스로의 몸을 가꾸기 시작하면서 신체를 노출하기 시작하였다. 여성의 노출과는 달리 남성의 노출은 주로 가슴에 한정되어 있다. 남성의 가슴은 여성과는 달리 근육으로 탄탄하게 가꾸어졌을 때 매력적으로 보이게 된다. <그림 11>과 같은 남성의 가슴 노출은 V자로 깊게 패인 셔츠를 통해서 이다. 과격하지 않고 은근한 신체노출은 에로틱한 이미지를 보여주며 과거 여성에게 한정되어 있는 섹시함이 남성에게도 나타나고 있음을 말해 준다.

(2) 모델과 사진특징

여성성을 나타내는 남성모델들은 가는 얼굴선과 어깨까지 내려오는 머리카락, 호리호리하고 날씬한 몸매를 가지고 있다. 너무 큰 근육들은 여성스럽지 못하다. 입술을 붉게 하고 눈은 강조하는 메이크업을 하고, 짧은 머리는 자연스럽게 연출하고 있다. 여성의 S라인을 따라하듯이 허리와 힙을

강조하는 포즈를 취하여 여성성을 연출하고 있다. 여성성을 강조하기 위해 꽃, 식물이 보이는 곳을 배경으로 촬영하였다.

2) 남성성(masculinity)

(1) 복식의 표현방법

남성이 남성적으로 보이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남성성을 더욱 강조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남성 패션 잡지의 에디토리얼 사진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복식은 바로 슈트이다. 슈트는 바지, 드레스 셔츠, 테일러드 재킷으로 이루어진 남성의 정장이다. 이러한 슈트는 남성미가 가장 잘 드러나는 복식 아이템으로 여성이 남성성을 표현하기 위해 가장 많이 착용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림 12>는 슈트를 갖춰 입고, 중절모, 총과 같은 아이템을 사용하여 남성성을 극대화 시켰다. 슈트 차림에 담배를 물거나, 중절모를 착용하면 남성적인 이미지가 더 커진다. 군복을 입은 강인한 군인의 모습도 남성미를 강조하는 대표적인 이미지이다<그림 13>.

(2) 모델과 사진특징

남성성을 나타내는 모델들은 여성성을 나타내는 모델들과는 반대로 짧은 헤어스타일 각진 얼굴, 탄



<그림 11> 여성성 - 가슴 노출과 꽃무늬 상의. 에스콰이어 2003년 7월
 <그림 12> 남성성 - 강인한 군인의 모습. 에스콰이어 2002년 11월
 <그림 13> 남성성 - 슈트에 중절모와 총. 에스콰이어 2002년 10월

단한 근육을 가지고 있다. 조금은 거칠어 보이는 눈빛을 하고 있으며 항상 어깨를 펴고 있다. 특별한 화장이나 헤어스타일은 존재하지 않지만 수염을 기른 모습들을 종종 볼 수 있다.

입은 굳게 다물고 진지한 눈빛을 연출하고 배경에는 남성성을 나타내기 위해 자동차, 모터사이클 등의 소품들이 자주 등장하고 복싱, 사냥과 같은 남성위주의 활동들을 표현한다.

3) 양성성(androgynous)

(1) 복식의 표현방법

남성이 보여주는 양성성은 남성 신체에 여성적인 장식을 함으로써 나타난다. 남성은 자신들이 가지지 못한 부드러움, 화려한 여성성을 나타내기 위해 화려한 장식들을 하는데 모피와 같은 풍성함을 나타내는 소재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림 14>은 털을 이용하면 부드러우면서도 볼륨감이 있기 때문에 남성에게 없는 부드러움과 폭신한 느낌을 전달한다.

털 소재의 의복 외에 꽃과, 스카프, 핸드백 등 여성성이 강한 소품을 남성이 착용함으로써 여성성과 남성성의 조화를 이끌어 내고 있다

(2) 모델과 사진특징

화려한 메이크업을 하고 긴 머리가 어울리는 다소 여성성이 강한 외모의 모델들을 기용하여 남성

미를 억제시키고 여성적인 의복을 착용하게 하여 양성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정적인 포즈를 취한 모델이 가지고 있는 가는 얼굴선과 부드러우면서도 날카로운 이미지를 잘 활용한다. 의복의 화려할 때는 무채색의 배경을 사용하고, 조명의 반짝임을 사용하여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한다.

여성의 양성성이 여성과 남성의 신체를 결합시킨 것이었다면 남성의 경우 남성의 신체에 여성적인 장식을 통해 양성적인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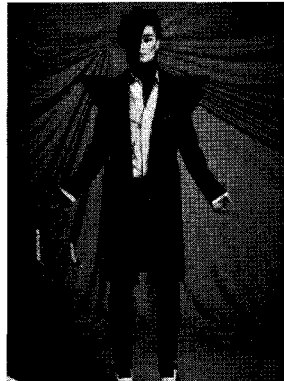
4) 중성성(sexless)

(1) 복식의 표현방법

여성과 같이 남성도 중성적 이미지를 가지기 위해서 신체와 얼굴을 은폐하는 표현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얼굴의 일부를 감추는 방법으로 고글을 사용하거나, 사진에 얼굴이 드러나지 않게 편집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그림 15>. 얼굴 전체를 은폐할 경우의 복식은 남녀가 함께 입을 수 있는 유니섹스 스타일을 착용하여 성의 구별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남성의 경우 여성과 달리 꼭 은폐해야하는 신체적 특징이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과장된 신체 변형을 통해 성을 인지할 수 없게 한다. 이러한 신체 변형은 사물과의 결합, 다른 생명체와의 결합하여 다소 과장된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혼합되어 다



〈그림 14〉 양성성 - 풍성한 소재의 의복과 화려한 액세서리를 착용한 모습. 에스콰이어 2004년 12월
 〈그림 15〉 중성성 - 얼굴을 보여주지 않고 형태가 확실하지 않은 의복. 에스콰이어 2000년 1월
 〈그림 16〉 중성성 - 과장된 머리형태와 신체 왜곡. 에스콰이어 2005년 12월

양하게 변화한 상태를 연출하여 다소 괴기스러우면서도 우스꽝스러운 분위기를 보여준다. 이러한 이미지는 마치 인간이 아닌 또 다른 생명체와 같은 느낌을 주고 있다.

(2) 모델과 사진특징

모델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보다는 콘셉트에 맞게 모델을 어떠한 방식으로 꾸몄는가가 중요하다. 과장되게 부풀리거나 표현된 헤어스타일과 분장에 가까운 메이크업에서 특정한 성의 이미지를 찾아보

〈표 3〉 패션사진에서 보이는 성별에 따른 젠더 이미지

	복식의 표현방법	모델과 사진특징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	배경 이미지	모델의 포즈	기타
여성					
여성성	- 신체노출 - 장식	얇은 눈썹 붉은 입술	부드럽고 은화	단아 · 정적 S라인 강조	.
남성성	- 여성 신체 특성의 은폐 - 직선적인 실루엣 강조 - 남성성이 강한 아이템	짧은 머리 짙은 눈썹 수염	어두운 무채색	턱 선과 어깨를 강조	.
양성성	- 여성상체와 남성하체의 공존 - 과도한 장식	화려한 메이크업	어둡거나 몽환적	.	.
중성성	- 신체 곡선의 은폐 - 얼굴의 은폐	짧은 머리	무채색	.	.
남성					
여성성	- 여성적 색상 · 문양 사용 - 에로틱한 신체노출	긴 머리카락 붉은 입술	꽃, 식물 등 자연적 배경	S라인 강조	.
남성성	- 남성성이 강한 아이템 사용	짧은 머리 짙은 눈썹 수염	어두운 무채색	절도 있는 포즈	남성적인 활동성표현
양성성	- 풍성한 의복 - 여성적 소품사용	화려한 메이크업	무채색 화려한 조명	.	흑백사진
중성성	- 얼굴과 신체곡선은은폐 - 분장	짧은 머리 분장	무채색	.	.

기는 어렵다.

여성의 중성성이 신체를 은폐하여 성적인 특성을 감추는 것에 멈춘 것에 반해 남성의 중성성 표현은 성적 특징을 감추고 거기에 다른 이미지들을 더하여 새롭고 독특한 이미지를 만들어 내고 있다(그림 16). 여성이 여성성을 은폐하는 것으로 중성적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반해 남성은 남성성을 버리지 않고 새로운 이미지를 추가하여 중성성을 표현하고 있다. 이는 남성이 가지고 있는 거세에 대한 불안한 심리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¹⁹⁾

V. 결론

신체적 성은 태어날 때부터 결정되지만 사회적 성은 사회의 학습과 문화에 따라 결정 된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 성은 남성과 여성뿐이지만 사회적 성인 젠더는 여성성과 남성성, 양성성, 중성성까지 모두 4가지로 나누어지고 있다. 과거 복식은 신체적 성의 경계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하였다면 현재는 자신의 젠더를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신체적 성에 따라 유지되어 왔던 복식의 차이가 20세기에 들어 젠더에 따라 나타나고 있음을 알고, 에디토리얼 패션사진을 통해서 신체적 성과 젠더가 복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에디토리얼 패션사진을 통해 본 성별에 따른 젠더이미지 표현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에디토리얼 패션사진에서 보이는 신체적 성에 따라 젠더이미지 표현은 방법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각 성별로 보았을 때 여성은 여성성, 남성성, 중성성, 양성성의 순으로 빈도나 나타나고 있으며, 남성은 남성성, 여성성, 양성성, 중성성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의 경우 여성성을 제외한 다른 젠더 이미지의 표현 빈도가 남성성이 5%, 중성성 3%, 양성성 2%를 나타냄으로, 여성성 4%, 양성성과 중성성 각 1%를 나타낸 남성보다 다양한 젠더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남성에게 비해 여성이 현대 사회에서 더욱 다양한 젠더 역할들을 수행하면서 기존의 여성성이 아닌 다른

젠더 이미지들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여성의 여성성 표현방법은 신체 특성의 노출과 복식에 장식을 함으로써 나타나고 있었다. 여성적 신체 특성을 은폐하는 방법은 남성성과 중성성을 표현하는데 사용이 되었으며 과장된 장식과 혼합은 양성성을 나타내는데 사용되었다. 남성 역시 남성성이 가장 많이 표현되고 있는데 그 방법은 강조다. 전형적인 슈트에 담배, 증절모 등의 액세서리를 더하여 남성성을 강조하고 있다. 여성성의 여성과 같이 장식과 노출을 통하여 표현, 양성성은 장식과 과장, 혼합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여성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인 것은 중성성의 표현방법인데 남성의 경우 혼합과 변형을 통해 그 이미지를 보이고 있다.

복식이 성이미지 표현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나 에디토리얼 패션사진의 경우 잡지의 콘셉트와 사진작가의도에 따라 같은 의복이라도 전혀 다른 이미지로 보일 수 있는데 이때, 복식이외에 모델, 조명 배경 등이 성 이미지 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모델이 가지고 있는 신체조건, 얼굴의 모양, 헤어스타일은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콘셉트에 맞는 모델 기용은 패션 사진 촬영 시 중요한 일이다. 콘셉트에 따라 모델은 다양한 포즈를 취하게 되는데 이는 성 이미지를 나타내는 한 요소로 작용한다.

에디토리얼 패션사진에 나타난 성 이미지 표현은 대중에게 보여 주기 위해 제작되는 것으로 이는 일반 대중 패션에 영향을 미친다. 사진의 모습 전체를 독자들이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나 사진 속의 헤어스타일, 가방, 시계, 스카프 등의 액세서리는 쉽게 따라할 수 있고, 전체적인 스타일을 제시함으로써 대중에게 영향력을 발휘 하고 있다. 여성들의 경우 패션전문지를 제외하고도 많은 여성지에서 패션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유행을 제안하는 에디토리얼 패션사진의 영향력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실제 과거에 비해 각 잡지의 에디토리얼 패션사진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에디토리얼 패션사진이 표현하고 있는 다양한 성 이미지에 대한 표현은 대중에게 보다 쉽게 접근하고 영향력을 미침으로써 앞으로 복식을

통한 성 이미지 표현은 신체적 성과 일치하기보다는 자신의 사회적 성인 젠더 이미지에 관심을 가지고 표현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복식을 통한 성적 이미지 표현은 20세기 들어 대중매체를 통해 급속도로, 극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패션사진에 나타난 신체적 성에 따른 젠더 이미지를 통해본 결과 남성잡지와 여성잡지라는 특성과 역사 이래 지속되어온 성적 이미지를 한순간에 바꾸는 것은 아직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두 잡지의 에디토리얼 패션사진에서는 두 성의 이미지를 색상이나, 무늬, 소재, 아이টে를 차용하여 신체적 성과 반대되는 젠더 이미지를 나타내는 경우는 많았으나, 극단적인 양성성과 중성성의 표현의 비중이 적었다.

하지만 각 에디토리얼 패션사진에서 신체적 성과 상관없이 다양한 젠더이미지를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계속 될 것이다. 미래의 성은 신체적 성이 아닌 젠더를 기준으로 나누게 될 것이며 복식의 선택 역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젠더 이미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복식은 기능적인 역할 뿐만 아니라 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젠더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모습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각 성별로 다양한 젠더 이미지의 분포를 예상하였으나 여성의 경우 여성성이, 남성의 경우 남성성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예상과는 다른 결과를 나타내었다. 각종 대중매체를 통해 사회, 문화적으로 전파되고 있는 다양한 젠더 이미지를 패션잡지의 에디토리얼 사진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이유로는 이러한 잡지들이 특정 대상을 독자로 가지고 있고, 독자들의 취향과 흥미를 맞도록 잡지 내용을 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여성잡지에는 여성적인 이미지가, 남성잡지에는 남성적인 이미지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고, 양성적인 이미지와 중성적인 이미지는 그 비중이 낮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지큐와 에스콰이어는 최고가 되고자하는 멋진 남성들, 즉 신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잡지로서 대부분의 에디토리얼 사진들이 신사정장위주로 채워져 있어 타 대중 매체와 패션쇼 등에서 보이던

다양한 젠더 이미지들은 많이 나타나지 않았다.

특정 계층의 독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잡지 특유의 성격상 젠더 이미지 표현에 한계가 있었고, 이는 잡지를 연구 대상으로 사용한 본 연구의 한계점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1) 이정민. *Fashionbiz*. 2006년 2월호, p. 64.
- 2) 채수진, 김혜연 (1999). 페미니즘적 시각에서 본 현대복식의 앤드로지너스 현상에 관한 연구. *복식*, 43, p. 20.
- 3) 조세현 (2000). 조세현 패션사진. 서울: 김영사, pp. 10-11.
- 4) 윤가현 (1998). *성문화와 심리*. 서울: 학지사, p. 17.
- 5) 정세희 (2000). 영화의상에 나타난 젠더(Gender)정체성)-193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p. 10.
- 6) 위의 책, p. 8.
- 7) 이민선 (1993). 복식에서 성의 가시적 불일치에 관한 사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21.
- 8) 김명자 (1991). *의상학총론*. 서울: 학문사, p. 297.
- 9) 정홍숙 (2002). *서양복식문화사(개정판)*. 서울: 교문사, p. 359.
- 10) 위의 책, p. 363.
- 11) 채수진, 김혜연. *앞의 책*, p. 210.
- 12) 현대패션100년편찬위원회 (2003). *현대 패션 100년*. 서울: 교문사, pp. 297-299.
- 13) 김희정 (2003). *현대 패션사진에 나타난 성적 일탈 연구 - 196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p. 29.
- 14) 조세현. *앞의 책*, pp. 20-21.
- 15) 김성민 (2005). 대중 잡지의 에디토리얼 패션사진이 독자들의 '몸' 이미지와 수용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사진학회지*, 12, p. 157.
- 16) 홍주표 (2002). 에디토리얼 패션사진의 구성요소와 표현형식에 관한 연구. *현대 사진영상학회논문집* 5, pp. 64-65.
- 17) 위의 책, pp. 64-65.
- 18) 이민선, *앞의 책*, p. 13.
- 19) 지그문트 프로이트. 김정일 역 (1996). *성욕에 관한 세 편의 에세이*. 서울: 열린 책들, p. 49.